왜 믿는 자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들 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여기서는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면에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말씀에 대하여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되도록 성경을 믿고 그렇게 살라는 것으로. 또는 믿는 자에게 주어 진 삶의 가이드라인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는 엄청난 말씀에 대한 오해이고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한다 면 잘못된 것일까?

말씀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여 왔고 또한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렇게 된다. 천지창조 의 하나님의 경륜은 최후 심판으로 세상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성이 임하면서 매듭을 짓지만(계21:27), 영원 한 하나님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은 그에 따라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말씀도 영원히 지속하게 된다(계21,22장).

이러한 말씀이 영원 전부터 계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은 바가 되었다(요1:1-4). 곧 모든 만물의 창조의 근원이 말씀이라는 것이다(눅8:11). 천사의 지음도, 인간의 지음도, 우주만물의 지음도 말씀 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도, 구원의 역사도, 더 나아가 최후의 심판까지도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이루어 진다. 이렇게 모든 것의 중심에 말씀이 서 있다. 이는 모든 것의 근원이 말씀인 것을 말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왜냐 하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영생과 생명의 근원이 말씀이기 때문이다(벧전1:25).

그러므로 피조물에게 말씀이 생명으로 명령될 때 영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것도, 천사가의 영생도 말 씀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요1:3),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 도이시다(요1:3,4,11).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외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이었다(요8:38). 그리고 말씀대로 사시며 하나 님의 뜻을 이루셨다(요6:38-40).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고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손수 창조하신 것이다(창1:26,27).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생령이 되게 하여(창2:7) 이에 따라 피조물 사람은 영생케 된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조상 아담은 사탄의 유혹으로(창3:6.창4:23.24) 사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저주(지옥)속에서 영원히 있게 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말씀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눅1:30.31.2:5-7)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눅24:6,51)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회복시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영생(천국)을 다시 갖 게 하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살펴볼 때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말씀으로 진행되며 말씀으로 매듭지어짐 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의 중요성,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성을 알게 된다. 바로 진리이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이며(요14:6) 바로 하 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주를 믿는다고 한다면 말씀을 벗어나 살 수가 없는 것이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 는 것이다. 하나님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표출하고 지켜냈느냐를 보실 것인데 그 기준이 말씀 인 것이다. 고로 믿는 자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말씀을 삶에 비추어 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요 14:23.요일2:24), 이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말씀은 원래 로고스(Logo)로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객관성을 띠고 전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로고스가 성령의 역사로 개인 적 깨달음과 개인적인 말씀으로 생동하는 레마(Rehma)가 되어 질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실천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된 다. 그리될 때 진정한 의미의 말씀에 대한 행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많은 경우 기도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지만 이보다도 원천적인 역사 는 말씀이 자신의 레마로 역사할 때 이러한 일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치유의 역사도 단순한 치유의 기도형식보다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보다 큰 역사가 있게 됨을 볼 수 있다. 곧 말씀속에 생명과 해결책이 있기에 그렇다.

주님은 "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다(요1512), 이러한 아카페((그리스어: ανάπη) 의 절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은 우리의 의지로만 아니 된다. 기도와 말씀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실현 가능한 것이 다.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는데 에는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하고 성령님의 인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속에서 일어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말씀을 빼놓고서는 살 수도 없고 그리 살아서도 아니된다. 구원의 완성은 주님께로 갔을 때 이루어지게 되 는데 구원을 받고 들림(휴거)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기준, 믿음의 삶이란 바로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고로 말씀대로 살아 야 한다. 우리는 이 점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종착역은 이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성 이기 때문이다.

마침 우리 LA 은혜 한인교회에서 구제헌금이 들어와 당장 물질이 없어 고민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24: 12~13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자매 동역자 여러분! 수 개월간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안락함이 사라진 이때에 여전히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서로 돌보며 위로하고 격려함에 감사 드립니다. 올 여름(캄보디아의 우기) 코로나로 발이 묶여 모임을 가질 수 없던 때에 마 스크를 쓰고 가정방문을 하며 생각했던 것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마비된 이때에 우린 무엇을 해야 하나?" 라는 것이었습니 다. 그 때 한가지 든 생각이 "아! 모두 경제활동이 줄어서 어려운데 이 때에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 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LA 은혜 한인교회에서 구제헌금이 들어와 당장 물질이 없어 고민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근래에 벽돌집을 지은 한 집 빼고는 대부분 철 판자집입니다. 지붕만 철판이면 감사할 따름입니다.(그러나 캄보디아 사 람들은 의외로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들 입니다.) 구제헌금을 받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고기라도 실컷 먹였으면 하는 마음이 들 어, 모임 규제가 풀릴 때쯤 되어 그 동안 못 모이던 지체들을 모아 돼지고기 몇 킬로를 사다가 고기 파티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 이 못 먹어서 조금은 속상했지만 모두 배부르다며 배를 튕기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9월 초쯤 모임 규제가 완화되고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구제도 하고 교회에 안 믿는 가족들을 초청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준비 하고 있던 중 그 동안 병환으로. 병실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갑작스런 소식을 받고 그날 밤 바로 한국의 가족에게 갔습니다. 근래 에 좋아지신다는 기쁜 소식을 받은 터라 기대가 컸는데 임종도 못 뵙게 되어 너무나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부 모님의 임종을 옆에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국에서 가족들을 위로하고 다시금 캄보디아에 돌아와 긴 자가격리를 마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직 마음 한 칸이 쓰리고 아픈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 부탁 드립니다. 저희는 먼저 저희 교회에 가난한 지체들의 집을 방문하여 생활 물품들을 공급하고 교회에 출석하진 않지만 오랫동안 관계를 해왔던. 질병과 가난으로 허덕 이는 자매 집에 약간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작은 마을에 있는 가끔 교제하는 현지 교회들에게 안부를 묻고 도움을 주 |었습니다. 아내가 다리가 아파 짐을 들 수 없는 터라 친한 현지 전도사가 각 가정방문에 함께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마음이 편한지 이런 착한 사역자가 우리와 함께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께서 부족한 저희 를 돌아보사 속히 전도사 한 명을 붙여주시길 위하여 기도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제를 통해 냉 냉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학교를 쉬면서 생업에 뛰어든 중학교청소년들이 규제가 풀리고 다시금 학교를 나가게 되었지만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정식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상담을 하며 여러 가 지로 설득을 해 보았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언제나 기도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뒤엔 교회가 있어 행복합니다.

기도제목

1.선교사가 성령으로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2.생활하고 사역하는데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3.주께서 쓰실 만한 작은 공간이라도 매입하여 쓰나오 마을을 중심으로 충실히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4.좋은 현지 사역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5.교회친구들이 환경과 상관 없이 믿음을 잃지 않고 주께 붙어 있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며 주님에게까지 자라도록

6.세 자녀 드보라 다니엘 샤론이가 세상 속에서 세속화에 휩쓸리지 않고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건강 하고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캄보디아김광석 이영미선교사-







탄자니아와 잔지바르 대선 및 총선이 지난 10월 28일에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선거철에는..

『[3]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 2:3-5)

< 잔지바르는 지금 >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탄자니아와 잔지바르 대선 및 총선이 지난 10월 28일에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선거철에는 선거운동이 과열되어 사건사고들이 나곤 했었는데, 이번에도 여당인 CCM당과 야당인 ACT당 간에 선거운동이 과열되어 곳곳에서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선거 결과 여당인 CCM당이 압도적으로 이겼고 또 선거 후에도 평안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은혜 감사 드립니다.

< 에버그린 학교 사역 >

정부에서 코로나 종식 발표로 시작한 학교수업이 처음에는 코로나가 없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모든 학교를 정상 수업하도록하여 에버그린 학교도 개학을 하여 공부를 시키면서도 염려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학생도 감염되는 일없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공부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10월에는 대통령 선거로 폭동을 염려해서 정부가 10일을 또 휴교명령을 내려서 12월초부터 있을 정부시험에 4학년과 6학년의 수업진도가 부족하여 시험에 어려움이 있게 되어 남은 기간이라도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특히 6학년 정부시험 성적결과에 따라 중학교 배정이 확정되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긴장을하며 학교에서 합숙하며 공부시키는 중에 있습니다. 6학년 아이들은 처음으로 집을 떠나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밥, 빨래, 청소 등 일들을 스스로 하면서 책임감도 교육이 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학부모들이 때때로 밤에 과일과 음료를 사다 주며 사랑을 베풀며 격려하는 모습에 감사하고, 저희들도 아이들이 영양균형을 잃지 않도록 계란과 고기를 사다 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2019년 시험성적 결과 잔지바르에서 전체 1등을 해서 아이들 모두 원하는 좋은 학교에 입학하였는데, 2020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 성경대학 >

4명의 우리 성경대학 용사들은 지금 세 번째 텀, 번성하도록 동원시키라, 지역교회의 사역자 훈련, CELL GROUPS, 능력 전도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0명이 공부를 시작하여 코로나로 인해 중도에 학생들이 포기하였지만 지금 남은 우리 용사들은 열 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계속 중보해 주시는 은혜임을 믿고 감사 드립니다.

생계와 공부를 겸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남은 학생들이 성령 충만하여 열정이 식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 기도제목 :

- 1. 저희 부부가 성령충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
- 2.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무슬림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 3. 에버그린 학교 4.6학년 학생들이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4. 남은 성경대학 학생들이 생계와 공부를 겸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성령 충만하여 끝까지 승리하도록
- 5. 키딤니 학교 책걸상 및 비품 구입, 조경공사, 그네, 전기, 수도공사 등 필요한 재정 공급과 믿음으로 가르칠 교사를 보내 주시
- 기를, 또 스토리텔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6. 아프리카에 코로나19 전염병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또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도록
- 7.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 영육에 강건 하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 8. 코로나19 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들들이 잘 견디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 9. 저희 부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탄자니아 잔지바르에서 송규영,오효숙/민석,은석 선교사--





지난 11월 29일 하나님은혜로 사할린에 입국했어요!!!! 코로나에도 이상없고. 천목사님 건강도 이상없읍니다.

그간 평안하시지요?

지난 11월 29일 하나님은혜로 사할린에 입국했어요!!!! 코로나에도 이상없고. 천목사님 건강도 이상없읍니다. 성도님들이 저희가 들어가니 얼마나 기뻐하는지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읍니다. 한목사님을 위시해서 기도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쁜 소식을 성도님들께 전해주시고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할린천병기 천사라선교사--













러시아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재판 승소 원본을 은혜사랑교회 리더가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

저희들이 재판에 승소를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주신 은혜교회 모든 동역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러시아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재판 승소 원본을 은혜사랑교회 리더가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러시아에 계속 연락 중에 있는데 출입국 관리소에서 '코로나 문제와 비행기가 자주 운항하지 않는 특별한 재난의 시기이므로 내년 초에 아무 때나 와도 등록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은혜사랑교회 예배당 건축을 마무리하는 일과 차량구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2월경에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르 소망교회 블라고볘쒠스크 시에서 영주권을 빨리 재신청해서 받으면

4월경에는 크라스노다를 시에 있는 은혜사랑교회로 가서 예배당 건축을 마무리 하면서 교회를 섬기려합니다!

은혜사랑교회 예배당이 마무리 되면 가까운 지역 오지 미전도 지역에서 순회선교를 하면서 가정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를 정하여 이스라엘 선교를 위한 답사도 가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 영육간에 재충전도 잘 받고 있지만 또한 이스

라엘 선교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해서

다시 은혜 중에 새 출발을 잘하도록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1. 주 아버지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 2. 아들 은믿음이가 히브리대를 졸업해서 통역병으로 군 생활을 잘하고 이스라엘 러시아인들 선교비전을 갖도록
- 3. 은혜사랑교회 건축 마무리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4. 코로나에걸린 러시아 교회 성도들을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바랍니다.

--러시아 은성식 김경희 선교사--

